

서 평

양성평등 담론 비판과 트랜스 페미니즘의 가시화, 그 쟁점과 과제

정희진 엮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교양인, 2017)

권김현영 엮음,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교양인, 2018)

정희진 엮음, 『미투의 정치학』(교양인, 2019)

정승화*

1. 도란스 기획총서와 트랜스 페미니즘의 가시화

연구모임 '도란스'는 『양성평등에 반대한다』를 필두로 기획총서 4권을 시리즈로 발간하였다. 트랜스의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옮긴 도란스라는 이름에는 한국 근대의 혼종성을 드러내고 젠더와 섹슈얼리티,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 현실을 해석하고 개입하려는 학문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담았다고 한다. 성전환자에 대한 비속어로 사용되기도 했던 도란스라는 단어를 연구모임과 기획총서의 이름으로 사용한 데에는 한국 사회에 트랜스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겠다는 필자들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 페미니즘이란 영미 권에서 트랜스젠더리즘을 중심

*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shjoung@gmail.com)

© 2020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으로 재편되고 있는 퀴어정치학에 페미니즘을 결합시킨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총서 1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는 양성평등으로 표상되는 젠더 이분법에 대한 비판으로, “남성/여성의 범주와 개념 자체의 허구성을 밝힘으로써 개인이 좀 더 젠더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성차별에 대한 저항)을 모색하는 작업”과 “동시에 성적 소수자로 불리는 이들의 존재와 투쟁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젠더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정희진, 2017a: 11). 4권 『미투의 정치학』에서는 섹스와 젠더의 급진적 분리를 주장하고 개인들의 젠더정체성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을 옹호하는 트랜스 페미니즘의 이론적 지향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트랜스젠더 활동가 루인은 “인간에 대한 폭력을 증식하고 폭력 개념 자체를 재사유하는 실천이 페미니즘의 일부라면, 어떤 경우에도 이원 섹스-젠더와 섹스-젠더의 필연적 관계를 준거 틀로 삼아 논의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섹스-젠더 관계, 젠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루인, 2019: 170).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등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문제를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했던 퀴어 정치학이 인터섹스와 트랜스젠더, 넌바이너리 젠더퀴어 등 젠더 다양성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환되면서 퀴어친화적인 페미니즘도 트랜스 페미니즘으로 변화되고 있다.

트랜스 페미니즘은 젠더의 변형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성별위계의 문제를 젠더이분법 해체와 젠더 범주 자체의 다양화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젠더 개념은 최근 숙명여자대학교 트랜스젠더 입학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 사회 페미니즘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직면한 가장 첨예한 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도란스 기획총서는 한국 사회 페미니즘 담론 공간의 최신 이슈와 트랜스 페미니즘의 이론적 지향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젠더 개념을 둘러싼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논쟁의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2. 양성평등 반대 선언의 효과

도란스 기획총서의 배경과 문제의식은 『양성평등에 반대한다』의 책날개에 소개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페미니즘은 여성 특권주의, 여성 우월주의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성평등이다’라는 남성들의 모순된 주장에 대한 대응, 둘째, 양성평등이라는 정책 담론이 성차별적인 현실을 은폐한다는 문제의식, 셋째, 메갈리아와 일베 집단으로 대변되는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간의 갈등 즉, ‘이성 혐오’라는 틀 속에서 성소수자의 존재가 삭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담론은 남성 중심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기에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담론에서 양성평등은 성평등과 마찬가지로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의 번역어로 혼용되던 용어였다. 때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보다 이성에 중심적인 방식으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한다고 이해되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의 형식적 평등에 치중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수용되기도 했지만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페미니즘 운동과 정책의 언어로 자리 잡으면서 남녀평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었다(이진욱, 2018).

일부 보수 개신교 진영에서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을 함께 의미하고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제한 이성에 남성과 여성의 조화와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양성평등 담론에 개입하였다. 그러면서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 같은 구호가 생겨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진영에서 ‘양성평등 No, 성평등 Yes’를 외치며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남성과 여성만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오세라비의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와 같은 책처럼 페미니즘의 얼굴을 한 안티페미니즘이 이퀄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고, 양성평등은 이퀄리즘을 표현하는 용어로 전유되어 양성평등이라는 용

어 자체가 이성애 중심적이고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지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의미로 재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젠더이분법에 대한 트랜스 페미니즘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페미니즘 담론에서 양성평등은 버려야 할 용어로 규정되었고, 간성이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용어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이러한 담론적 개입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법과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이러한 법과 정책들이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점을 가시화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모든 제도화된 문서들에서 소수자의 배제를 확정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만들었다. 즉, 관례적이고 암묵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던 배제의 정치를 확정적인 배제로 만들어 오히려 배제를 법에 명문화하여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이다. 양성평등 용어에 대한 강한 비판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하면서 양성평등의 의미를 페미니즘적으로 재규정하려 했던 다양한 담론적·실천적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비판의 대상을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고정된 형상으로 제시하는 역설을 낳았다.

양성평등 담론을 확정적으로 나쁜 용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 용어를 오용하는 이들이 정의내리는 용례를 그대로 인준하는 것이고, 새로운 담론 생산의 가능성을 쉽게 폐기처분해버리는 것이다. 이는 양성평등과 남녀평등이라는 용어의 역사적 가치와 잠재성 모두를 페미니즘에 반격을 가하는 이들에게 넘겨줘 버리는 것이 된다. 『빨래하는 페미니즘』의 서문에서 정희진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는 공적 영역에 진출한 잘난 여성, 기가센 여성, 혹은 단지 성별이 여성(female)인 지식인을 의미한다”라며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그 의미를 왜곡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승인하며 자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정희진, 2014: 7-8). 그는 양성평등과 남녀평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 “양성평등 담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성의 성역할과 여성의 성역할 위계를 비

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성을 기준으로 한 논리라는 데 있다”(정희진, 2017b: 49-50). “여성주의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 정의로서 성차별을 철폐(완화)하는 것이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정희진, 2017b: 49)라고 말한다. 이러한 방식의 비판은 남녀평등과 양성평등 용어 각각이 페미니즘 운동에서 갖는 역사적 가치를 축소하면서 단어들이 담론 투쟁의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재구성될 가능성 자체를 닫아버리게 된다.

유정미는 정책 영역에서 양성평등 개념이 사용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 보며 양성평등 개념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개념을 배제하기보다는 (양)성평등 개념을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전략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유정미, 2019). 남녀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비판하면서 오용된 의미를 그대로 승인하기보다는, 그 용어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전유되는 담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재전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담론 투쟁에 생산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일 것이다.

3. 피해자중심주의 비판과 신자유주의 시대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도란스 기획총서3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은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폭로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우리 사회가 피해와 가해의 구도로 성폭력의 문제를 다뤄왔던 방식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팀의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하고 성폭력 사건을 지

원하며 가졌던 고민과 성찰을 이 책에 담았다.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점검해보면서 미투 운동에서 불거진 피해자 정체성,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와 연대자와의 관계 등 피해자성과 여성운동의 관계를 고민하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획이다.

2000년대 이래 활발했던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는 학습권과 노동권 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고 피해상담과 고충처리 방식으로 다뤄지면서 매뉴얼화된 대응 체계를 만들어냈다. 피해자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의 판단과 해결의 전 과정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과 경험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대학이나 진보진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으로 수용되었다. 리즈 켈리의 성폭력 연속선 개념이 수용되면서 언어적 성폭력과 아웃팅 등을 포함한 문화적 차원에서 성추행과 강간이 모두 성폭력으로 지칭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를 의심하는 문화에 대한 대응으로 2차 가해라는 용어가 도입되면서 성폭력 피해의 개념은 더욱 확장되었다. 확장된 성폭력 개념과 2차 가해 개념의 부작용으로 문화적으로 배태된 성차별적인 일상의 실천까지도 피해와 가해의 프레임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생겨났다. 권김현영은 매뉴얼화된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책임을 가진 주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만 한정하면서 타자화시키는 방식을 성찰한다. 즉 피해자라는 역할 속에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의 주체라기보다는 도움 받고 요구하는 ‘권리의 형식을 띤 타자화’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권김현영은 피해자화의 문제에만 주목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문화적으로 배태된 성별위계의 문제를 폭력으로 포괄하여 논의해 온 그 동안의 반성폭력 운동의 확장된 성폭력 개념의 사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은 성폭력 해결과정에서의 피해자성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여성 운동이 피해자 역할에만 매몰되어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으로 나아간다. 도란스 연구진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새롭게 부상하는 페미니즘의 특성을 ‘나만을 위한 페미니즘’, ‘이익집단으로서의 페미니즘’ 같은 용어로 규정하며 ‘피해를 자원으로 삼는’ 경향에 대해 비판한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로 이어지며 한국 사회 전면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여성 운동의 가시화에 주목하면서도 권김현영은 “타자를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일성의 정치학”으로 평가하고(권김현영, 2018: 67), 정희진은 “기존의 페미니즘 윤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배려하거나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었다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밀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정희진, 2018: 233-234)라며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동안 페미니즘은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다양한 중심주의에 대한 윤리적 성찰성을 강조하고 ‘소수자 운동과의’ 연대를 중요시했다. 이에 비해, 새롭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세력화하면서 부상하고 있는 래디컬 페미니즘은 여성의 독자적인 세력화와 ‘여성들 간의’ 연대에 집중하며 여성의 정치 세력화와 경제적 평등, 성폭력 문제와 비혼 의제를 중심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강남역 10번 출구의 애도 물결 속에서 표출된 ‘나는 너다’, ‘나일 수도 있었다’, ‘여자라서 죽었다’ 등 살해된 여성과의 일체감은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불법촬영 등 일상화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불안은 여성이라면 누구든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통 감각, 즉 고통을 함께 느끼는 ‘통감’을 갖게 만들었다. 이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미투 운동, 탈코르셋 운동, 소비파업 운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 등 여성들 사이의 연대를 새롭게 구성해내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여성운동을 여성만 챙기는 이기적인 페미니즘으로 비판하거나 피해자성에 매몰된 페미니즘으로 진단하는 것

은 교차성 대 여성우선이라는 프레임화된 진영적 사고에 갇혀 젊은 세대 여성 운동의 역동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젠더 개념을 둘러싼 혼란과 확장된 젠더 폭력-성폭력 개념

사회문화적 성으로 성별 대신 사용되는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배열을 규정하는 사회질서와 남성중심의 구조적 위계를 지칭하는 분석적 개념이기도 하다. 젠더이분법 비판의 논의 속에서 젠더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사회적 범주만으로 다루어져서 젠더가 사회 구조적 층위에서 체계로서 작동하는 질서이자 구조라는 점이 종종 간과된다. 특히 젠더를 정체성으로 바라보며 젠더 범주 자체를 주관적으로 선택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구조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문제를 개인들의 행위와 심리적 차원으로 환원시켜 논의하는 것이다. 도란스 기획총서에서 사용하는 젠더 개념은 개념의 층위가 분절되어 있지 않아서 문맥 속에서 그 의미가 제대로 독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례로 “젠더라는 사회적 모순을 독해함으로써 비가시화된 젠더를 드러내고 저항하지만, 그 과정이 젠더를 당연시하고 고정하는 몰역사적 방식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젠더를 모순으로 지칭하는 바의 의미는 모호하다(정희진, 2017a: 11). 두 번째 젠더는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젠더가 있다는 의미로, 즉, 분류 체계로서의 n 개의 젠더와 퀴어 정치학에서 사용하는 정체성으로서의 젠더 개념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용된 젠더는 젠더 개념 자체를 역사화해서 젠더를 그 자체로 변화하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럴 때의 젠더가 체계인지, 분류 범주인지, 정체성인지,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화적 의미체계를 표현하는 것인지 모호

하다.

젠더 개념의 혼란과 함께 우려되는 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 혹은 성폭력을 뜻하는 젠더 폭력 개념을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실행하도록 하는 일체의 일상적 실천으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루인은 젠더 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젠더 폭력이란 각 개인에게 여성이나 남성과 같은 특정 젠더 범주를 지정하고 이렇게 지정한 젠더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압하는 일상의 실천”(루인, 2019: 184)이라는 것이다. 그는 젠더 폭력을 이렇게 정의할 경우, 아내 폭력과 트랜스포비아적 폭력은 젠더 고정관념을 수호하려는 젠더 폭력으로 동시에 통칭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젠더 폭력 개념의 문제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젠더 폭력, 즉 성폭력과 혼용되어온 젠더 폭력 개념을 젠더 고정관념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장하여 사용함으로써 젠더퀴어의 정체성을 의문시하는 일체의 젠더이분법에 기반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실행을 젠더 폭력, 즉 성폭력으로 지칭하게 된다. 이러한 젠더 폭력 개념은 가부장제나 성별 위계의 구조적 억압성을 젠더이분법의 억압성과 등치시키게 된다. 또한 여성 신체나 정신에 가해지는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폭력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실행 등의 문화적 아버투스의 작용을 뒤섞게 된다. 상징적 폭력과 물질적 폭력을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성폭력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폭력 그 자체를 추상화할 수 있다. 또한 이성애규범적이고 젠더이분법적인 사회 질서와 문화적이고 일상적으로 성별화된 성에 관한 언설 모두가 젠더 폭력, 즉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된 성폭력 담론화의 효과로서 개인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가해행위로 규정되고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는 혐오이자 포괄적인 성폭력으로 논의될 수 있다.¹⁾

1)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간한 『난다 된다 다른 몸II』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르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 항목에 FTM트랜스 젠더에게 여자인지 아닌지

폭력과 권력 개념을 확장한 후기 구조주의의 문제의식이 통속화되면서 구조의 억압성에 대한 비판은 곧장 물리적, 심리적 폭력과 등치되어 피해와 가해의 프레임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이 진단하는 피해자성에 매몰된 페미니즘의 경향은 이렇게 확장된 성폭력 개념의 사용과 연관이 있다. 젠더이분법 하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혐오와 차별의 경향과 일상의 관습화된 젠더 고정관념의 재생산을 똑같이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2차 가해”처럼 문화적 차원의 문제와 개인적 피해와 가해를 뒤섞어서 피해자성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확장된 성폭력 개념이 될 위험이 있다.

5. 닫힌 담론 비판에서 열린 담론 투쟁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페미니즘들 사이의 전선은 곳곳에서 담론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도란스 기획총서는 페미니즘 이론과 비평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주디스 버틀러에 의해 주도된 여성 없는 페미니즘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페미니즘 공론장에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여성 범주를 둘러싸고 ‘생물학적 여성’과 트랜스젠더 배제를 둘러싼 갈등은 진영대립에 가까운 혐오 프레임으로 논의되면서 ‘혐오의 정동에 추동되는 페미니즘’ 대 ‘교차성과 소수자 인권을 대변하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구도로 담론화된 경향이 있다. 소위 ‘쓰까 페미니즘’과 ‘래디컬 페미니즘’ 사이의 갈등은 교차성을 강조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페미니즘 대 혐오의 정동과 신자유주의적 생존주의가 낳은 이기적 페미니즘의

를 묻는 “아줌마들”의 무례한 언행 등이 사례로 실려 있고 “아줌마”가 주요한 성폭력 가해 집단으로 묘사되기도 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49).

갈등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근본 모순과 운동의 주체를 진단하는 방식의 정치적 노선 갈등의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성평등 실현과 관련해서 중심적인 성차별의 원인과 구조적 모순을 무엇으로 바라볼 것인지, 페미니즘 운동에서 변화의 주체를 누구로 상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경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²⁾ 래디컬 페미니즘이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를 '여성'으로 상정하고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한다면, 여성 없는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트랜스 페미니즘은 여성 범주 자체를 해체하고 '퀴어' 혹은 '트랜스젠더퀴어 등'을 해방적 주체의 형상으로 사고한다.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정치 운동으로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래디컬 페미니즘과 모든 존재들이 젠더 불화를 경험한다는 트랜스 연속체를 기반으로 젠더퀴어를 새로운 페미니즘의 주체로 사고하는 트랜스 페미니즘은 당분간 논쟁과 경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비남성 연대의 페미니즘은 해체주의 정치의 해방의 기획일 수 있다. 여성들 간의 연대성을 급진적으로 사유하는 래디컬 페미니즘 역시 해방의 기획이라는 점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운동의 독자성이 상호 존중되어야 생산적인 연대와 열린 담론 투쟁이 가능할 것이다.

인간의 형상이 성중립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남성이 대변자가 되는 비투르비우스적 인간³⁾을 대면하게 된다. 여성주의는 성중립성이 내포할 수 있는 남성중심성을 비판해왔다. 인간의 형상을 이원성으로 사유하려는 시도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이기도 하다. 비투르비

2) '생물학적 여성'을 생물학적 본질주의가 아니라 담론의 차원에서 읽어내려는 시도는 정승화(2018), "급진 페미니즘을 퀴어혐오로부터 구해내기: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의 연대를 위한 시론", 『문화과학』, 제95호, 50-73쪽을 참고하라. 이 글에서는 급진 페미니즘과 퀴어 페미니즘의 갈등을 젠더 개념을 둘러싼 상이한 이해에 기반하는 정치적 지향의 차이와 관련된 문제로 논의하였다.

3) 비투르비우스적 인간은 인체비례도라고도 불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간 신체의 황금 비례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으로 팔을 벌린 남성 나체의 상으로 그려져 있다.

우스적 여성을 사유하는 것은 인간 존재에 젠더를 기입함으로써 삭제된 여성의 존재를 드러내고 성차의 의미를 질문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젠더를 해체하기 위해 젠더를 기입하는 모순은 페미니즘의 역설 그 자체이기도 하다. 양성평등은 궁극적으로 해체되기 위해 젠더를 기입하는 페미니즘의 역설을 담은 용어이기도 하다. 담론의 격돌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생산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김현영(2018),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권김현영 엮음, 서울: 교양인, 21-70쪽.
- 루인(2019), “젠더 개념과 젠더 폭력”, 『미투의 정치학』, 정희진 엮음, 서울: 교양인, 148-194쪽.
- 유정미(2019), “반격의 “양성평등”에서 “(양)성평등”의 재정립으로”, 『한국여성학』, 제35권 2호, 1-35쪽.
- 이진옥(2018), “양/성평등 불협화음의 정치: 동수/양성평등이 성평등 개헌 운동의 종착지가 된 역설”, 2018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 (2018.6.16).
- 정승화(2018), “급진 페미니즘을 퀴어혐오로부터 구해내기: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의 연대를 위한 시론”, 『문화과학』, 제95호, 50-73쪽.
- 정희진(2014), “혁명보다 진화”, 『빨래하는 페미니즘 - 여자의 삶 속에서 다시 만난 페미니즘 고전』, 스테퍼니 스타, 고빛샘 옮김, 서울: 민음사, 5-13쪽.
- Staal, S.(2011), *Reading Women: How the Great Books of Feminism Changed My Life*, New York: Public Affairs.
- _____(2017a), “여성주의는 양성평등일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정희진 엮음, 서울: 교양인, 7-19쪽.

_____ (2017b),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정희진 엮음, 서울: 교양인, 21-56쪽.

_____ (2018),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권김현영 엮음, 서울: 교양인, 201-236쪽.

〈인터넷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2016),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매뉴얼: 난다 똘다 다른 몸II』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발간물
&cate2=A03&page=4&idx=209](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발간물&cate2=A03&page=4&idx=209)(검색일: 2020.6.23).